꼭지명 : 주간 철강 시황 리포트 (20.5.15)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애프터 코로나, 변혁적(變革的) 리더십을 기대하며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철강재…철강재 가격은 6월 폭락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이슈해설) 포스코 현대 '고로 리스크' vs 동국 KG동부 '리롤러 개선'
   (분석) 철강사 10곳중 7개꼴 적자 이익급감 '실적쇼크'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올 1~4월 철강재 수출 962만톤 전년비 5.3%, 54만톤 감소
   15일 산업부 성윤모 장관, 철강업계 대표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5. 금주의 자료 : 1) 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5.08)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 20.05.11)
   3)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4월말 기준) (출처 : 국제금융센터, 20.05.07)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애프터 코로나, 변혁적(變革的) 리더십을 기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본격화…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리더십 요구…조직원의 변화를 통한 동기 부여
비전과 사명감 강조…관심·창의성 높이는 공감 능력

세계는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개방경제, 글로벌화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으로 치닫고 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리부트(Reboot : 연속성을 거부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의 혼란에 서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실물경제 침체 및 각국 정부의 양적완화 그리고 제로금리(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기준금리 0% 수준) 시대로 바꿨다.

세계 경제 체계의 흔들림과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뉴노멀(New Normal :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이 본격화한 셈이다.

인류는 미증유의 언택트(Untact, 비대면), 임모빌리티(Immobility, 부동성)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세계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다. 그러나 그에 따른 클라우드 경제로의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났다.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봇 배달, 제조 및 서비스 로봇, 5G 응용, 인터넷 의료 서비스 등의 산업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채택될 것이다. 감염증이 기술진보를 앞당긴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된다. 바로 리더와 직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있어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능력과 기술을 요구한다. 리더는 고객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젊고, 더 진보적이고, 덜 계층적인 관리 구조의 개혁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용어는 베버(Weber)가 첫 거론한 이후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가 1978년 처음 사용했다. 이는 리더가 조직의 장기적 목표와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강조한다.

단기성과와 보상을 강조하면서 부하의 동기를 유발하는 거래적 리더십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적 리더십이 현재 부하의 상태에서 협상과 교환을 중요시 했다면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변화를 통한 동기를 부여한다. 재무제표에 의존하던 기존 금융 기반의 리더십에서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객의 니즈와 변화에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넘은 변혁적 사고가 요구된다.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창의성을 높이는 공감 능력도 절실하다. 변혁적 리더는 주어진 목적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하위자의 인식수준을 제고시키고, 하위자는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서 자신과 집단,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풍토를 마련한다.

현재의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닌가?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권위 대신에 진실 되고 꿈과 열정이 묻어나는 리더십을 요구한다. 인류는 거대한 도전의 시대에 돌입할 때마다 이겨왔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각성한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한국취업컨설턴트협회 대표 김진혁)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철광석 가격 1월래 최고치 기록…중국의 증산 가격 지지
철스크랩(고철)…국내 철스크랩 가격 변곡점…글로벌 약세조정
철강재…철강재 가격은 6월 폭락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철광석

철광석 가격 1월래 최고치 기록…중국의 증산 가격 지지

▲ 중국의 증산은 초강세장을 실현
- 철광석 가격은 5월 1~15일 10% 이상 급등
- 1월 이후 최고치로 중국 철강사들의 증산이 배경
- 4월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8503만 톤...역대 3번째 많은 기록
- 4월 철광석 수입량 9724만 톤...작년 12월 1만930톤에 이어 2번째 최고 기록
- 5월 조강생산량 작년 역대 최고치인 6월 수준에 도달
※ 5월 초 하루 평균 조강량 272만 톤.

▲ 양회(21~22일) 이후 변곡점
- 4,5월 강세는 코로나19 진정 외에 양회에서의 경기부양발표에 대한 기대감 반영

- 철강재 시장은 6월 2차 폭락(1차 2,3월)이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 제기
→ 중국의 과잉재고, 6월 건설비수기 진입, 코로나19 팬데믹 및 장기화에 따른 수요급감 배경

- 중국의 철강수출량은 3,4월 648만 톤, 632만 톤으로 2개월 연속 600만 톤대
→ 중국은 전세계에서 내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제 수요는 부진하다는 반증
→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

1. 철광석 가격
- 중국의 Fe 62% 수입 가격은 5월15일 기준 92.9달러
일주일 전 8일 대비 5.5%(4.8달러) 상승
4월 말 대비 10.9%(9.1달러) 상승

2. 중국의 철광석 재고
- 중국 45개 항구의 수입산 철광석 재고는 15일 기준 1억1100만 톤.
- 현재 재고는 작년과 올해 최저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하지만 향후 중국 내수 및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

※ 철광석 주요지표

◆ 철스크랩

국내 철스크랩 가격 변곡점…글로벌 약세 조정

국내 시황

동국제강은 인천 및 포항공장의 국내 구매 가격을 18일부터 인하
현대제철은 2만 원 인하, 환영철강공업은 당분간 유지
대한제강 한국철강 당분간 유지

영남권 기준 중량A 29만 원 경량A 27만 원

→ 국내 시장은 혼조세 돌입
→ 강세 지속으로 방점이 찍힘
→ 수입은 어려운 상황. 가격은 지난주 약세로 조정됐지만 해외 공급여력은 낮은 수준
→ 국내 물동량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국고(國庫)에 의존해야 할 상황

글로벌 시황

대형모선
한국 및 아시아 기준은 현재까지도 불안정한 공급을 이유로 오퍼가는 수요사가 감당하기 힘든 고가로 Test중. 오퍼는 동남아향 USD265/MT수준이며, 일본 고철가격[USD250-255CFR H2]과 동행 추세를 나타냄

일본
대형의 시장 상승 압력이 작용.
일본고철은 USD235-245/MT CFR H2[2주전] 시장에서 대형의 오퍼 급상승으로 USD240-255/MT CFR H2 진행 및 일부 성약. **지속성은 의문.**

컨테이너[대만]
현재기준 USD230/MT CFR 수준으로 미국산 hms 오퍼중.
일본 고철 상승으로, 컨테이너는 가격은 상대적 저평가 인식.

러시아
단순하게 대형 눈치보기 시장.
아직도 현대향 팬딩 오더 물량{USD247/MT]가 미선적으로 쌓여있음(현대제철)
주변 대형 성약 및 오퍼가를 고려시 추가 판매에 소극적임 [코로나 영향으로, 재고 및 발생도 부족한 상태(심각함), 계약을 서두르려 해도 서두를 수 없음]

터키
기필요량 확보 후 수요위축에 따른 구매가 저항저급 유럽산 USD238/MT HMS. 미국산 컨버트 가격은 USD245-248/MT 수준. [기존대비(미국기준) USD252/MT 대비 지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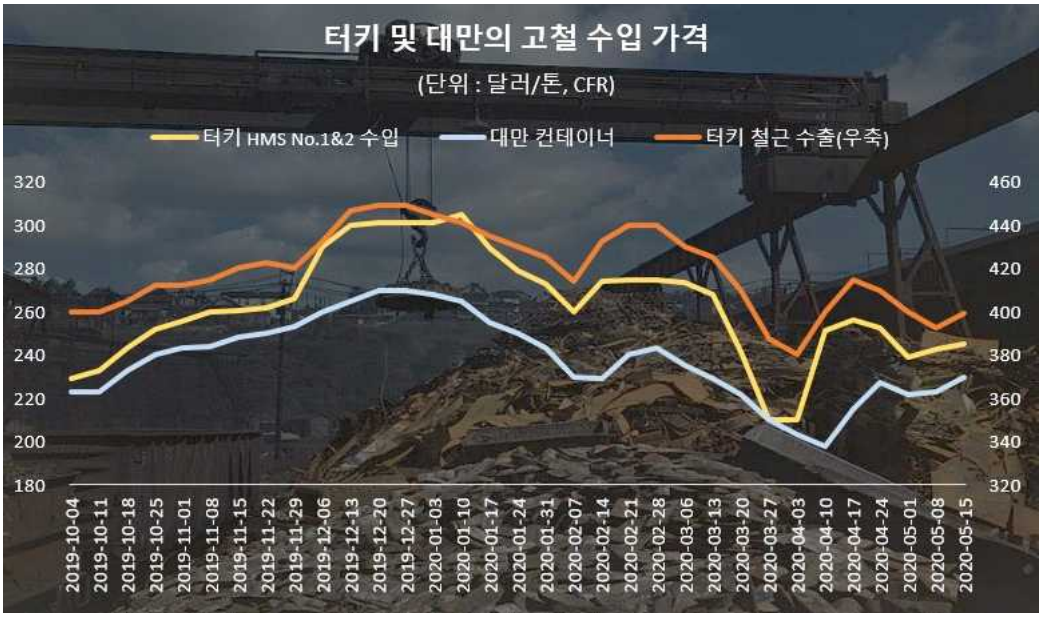
※ 동국제강이 지난주 계약한 호주산 대형모선 카고/일본/러시아는 글로벌 기준이 됨

1. 대형모선 HMS No.1&2(8:2)
- CFR 255달러(동국제강 호주산 카고 3만 톤)
- 터키 수입 가격 245달러
→ 4월 중순 257달러 정점으로 5월 초 239달러 이후 2주 연속 소폭 상승

2. 일본 H2 수출 가격
- FOB 2만3000엔(동국제강 5만 톤 성약)
- 국내 도착도 원화 가격은 28~29만 원. 국내 경량A보다 소폭 높음

3. 러시아 A3 수출 가격
- CFR 239달러(동국제강 8000톤 성약)
- 국내 도착 원화 기준 29~30만 원

4. 컨테이너 HMS No.1&2(8:2)
- CFR 230달러
- 국내 도착 원화 기준 28~29만 원



◆ 철강재

철강재 가격은 6월 폭락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LME 3개월물 철근 열연 고철 가격은 4월 말~5월 초 반짝 급등 이후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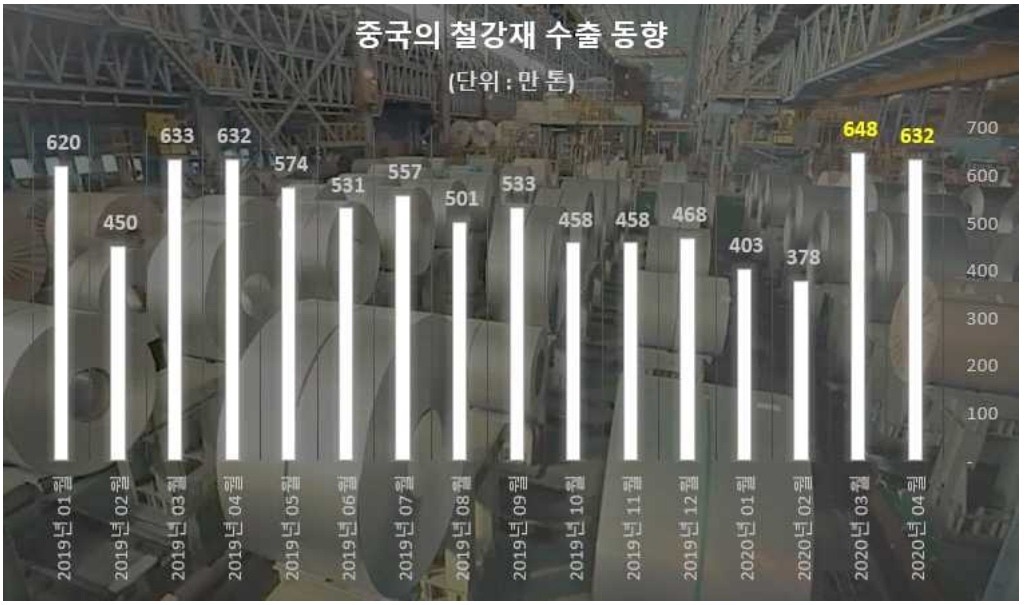
중국의 6월 폭락설…열연 300달러대(現 400달러 초반) 진입

하락 압력 요인

1. 중국은 6월부터 시장을 견인하는 건설분야가 비수기로 진입
→ 통상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함
→ 중국의 증산 및 4,5월 수주공백은 **양회(21~22일)** 이후 6월 폭락의 원인이 될 것으로 지적

2. 재고는 여전히 과잉
→ 마이스틸 집계기준 : 철근 재고는 15일 기준 1283만 톤
→ 9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 감소폭은 둔화
→ 작년 말보다 822만 톤, 전년 동월보다 427만 톤 많음
→ 중국 내수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자동차는 여전히 부진)
→ 4,5월 수주 공백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
→ 수출 환경은 코로나로 매우 부정적

3. 중국 수출 증가세(아래 표 참고)…**글로벌 출혈경쟁**
→ 중국은 3,4월 수출 600만 톤대 회복…내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증
→ 5월 생산량 최대…6월은 현재 과잉재고와 함께 **밀어내기 수출 예상**
→ 한국(포스코)의 조강량 유지 및 내수 수출 4,5월 **수주공백**
→ 일본 2분기 단계적으로 고로 조업중단. 감산은 수요부진을 상쇄하기에 역부족
→ 인도는 중국과 함께 4월 대폭적인 증산에 돌입



국내 철강재 시황

포스코 대응재(GS) 기준

1. 후판 유통 가격은 59만 원. 58만 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음
중국의 선물시장 상승으로 핑크빛 기류도 있음
반대로 가동률 상승 및 증산으로 수입산 증가를 예상 하락을 예상하는 분위기

2. 열연 유통 가격은 59만 원으로 6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감.
앞으로 58만 원이 대세로 읽힘
후판과 상황은 비슷하나, 열연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평가됨

3. 철근 국산 64만5000원에서 65만원 강보합
국내 제강사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 **추가 상승 관측**
수입산(일본/중국) 52만원. 국산 상승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
수입산 재고도 여전히 낮은 수준
지난주 용강 오퍼(440달러)에 2만 톤이 성약
일본산 3000~5000톤 성약.

4. 형강 타이트한 재고에도 국산 수입산 모두 하락
국산 형강 소형기준 76만원(동국) 77만원(현대)에 형성
국산 1만원 하락 수입산 2만원 하락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경기 하락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5.15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FOB)	현물	USD/bbl	31.94	▲2.11	7.07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CIF)	현물	USD/ton	476.27	▲14.74	3.19	월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도매가)	현물	KRW/ton	240,000.00	▼10,000	-4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수입가 CFR)	현물	USD/ton	93.65	▲1.48	1.61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FOB)	현물	USD/ton	115.69	▲0.55	0.48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165.00	▲9.5	0.18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432.50	▼1	-0.07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1,807.00	▼277	-2.29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1,949.00	▲10	0.52	일간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이슈해설)

포스코 현대 '고로 리스크' vs 동국 KG동부 '리롤러 개선'

동국제강 KG동부 이익 폭증 기록
포스코 현대 이익급감 적자전환 대조
장기침체 '꺼지지 않는' 고로 리스크↑
고로 공급과잉 초래 철광석만 고공행진
자동차 등 대형수요 몰락 부진 키워

고로 vs 전문압연업체(리롤러) 1분기 경영실적 비교

※ 개별실적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기업	2020년 1분기 실적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분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고로	포스코	69,699	4,581	-10.8%	-45.0%	-5.1%	24.8%
	현대제철	41,443	-213	-7.4%	적자전환	0.6%	적자지속
리롤러	동국제강	11,144	481	-9.5%	59.3%	-8.5%	흑자전환
	KG동부제철	4,614	243	9.6%	956.9%	20.5%	흑자전환
고로		111,142	4,368	-9.6%	**-56.4%**	-3.1%	**94.7%**
리롤러		15,758	724	-4.6%	**122.8%**	-1.5%	**244.9%**

양대 고로사인 포스코 현대제철은 올 1분기 실적 추락의 고배를 마신 반면 전문압연업체(리롤러)인 동국제강 KG동부제철은 실적을 대폭 개선했다. 코로나19는 2분기부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충격을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1분기에 드러난 고로 리스크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는 데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포스코 현대제철 2개 기업의 매출(개별기준)은 11조11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이에 비해 리롤러인 동국제강 KG동부제철은 1조5758억 원으로 4.6% 줄었다. 감소율은 고로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로와 리롤러, 양 업계는 모두 수요부진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 충격은 2분기부터 지속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또 다른 실적쇼크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익 면에서는 고로는 추락, 리롤러는 대폭적인 개선을 나타내 주목됐다.

포스코는 4581억 원으로 45.0%나 감소했고, 현대제철은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동국제강은 481억 원으로 59.3% 급증했고, KG동부제철은 243억 원으로 956.9% 폭증했다.

고로설비의 특성과 수요기반은 이 같은 실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로는 저성장시대, 장기적인 수요부진과 각국의 무역장벽 속에서 리스크가 드러났다. 설비특성상 가동중단 혹은 감산이 어렵다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포스코 현대제철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 무한대 생산이 지속되다보니 재고부담은 늘어났다. 특히 리롤러에 소재로 공급하는 열연 가격은 급락했다. 반면 **주원료인 철광석 가격은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이 열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됐다. 포스코가 비교적 높은 가격에 공급을 하더라도 중국 일본 등은 이를 대체하고도 남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고로의 리스크는 자동차 등 대형 제조업체에서도 비롯됐다.
현대제철은 최대 수요처인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 및 판매가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포스코의 경우 수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공장들은 2분기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어서 포스코의 2분기 실적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르셀로미탈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고로에서 전기로 중심으로 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배경이다. 미국 최대 고로사인 US스틸은 가장 적극적이다. US스틸은 현재 연산 580만 톤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총 생산능력인 1700만 톤의 3분의 1수준이다. 코로나19로 고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게리제철소 14호 고로(연산 300만 톤), 그래닛시티제철소 B고로(140만 톤), 몬밸리제철소 3고로(140만 톤)만 가동하고 있다.

대신 작년 인수한 빅리버스틸을 통해 전기로 생산체제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

철강사 10곳중 7개꼴 적자 이익급감 '실적쇼크'

매출액 16조1805억 8.8% 감소...영업이익 5928억 48.6% 급감
15곳 이익감소 12곳 적자전환...11곳 이익 증가, 2곳 흑자전환
KG동부제철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등 리롤러 이익 증가 '수출효과'
※ 기사 아래 실적 종합표 참고

철강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이익률은 4% 밑으로 추락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은 24곳(40%)에 달했다. 반면 KG동부제철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등 전문압연업체(리롤러)들은 이익이 급증해 대조됐다. 수출 확대 및 환율 효과가 배경이 됐다.
업계에서는 2분기 코로나19 피해로 수익성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았던 리롤러 업체 역시 2분기 실적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요 철강기업 40곳의 1분기 매출액은 개별기준 16조18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928억 원으로 48.6% 급감했다.
포스코를 제외하면 매출액은 9조9163억 원으로 7.1% 줄었다. 영업이익은 3210억 원으로 58% 급감해 감소율이 컸다.
절반 넘은 27곳(68%)이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휴스틸, 금강공업, 동일산업, 화인베스틸, 영흥철강, 대호피앤씨, 하이스틸, TCC스틸, 동양에스텍은 적자를 기록했고 한일철강은 적자가 지속됐다.

대다수의 기업은 이익이 급감했다.
현대종합특수강은 4억 원으로 83.0% 급감했다. 세아특수강은 52.1% 줄었다. 또 포스코(45%), 문배철강(43.8%), 환영철강공업(33.6%), NI스틸(27.8%), 경남스틸(27.4%), 삼현철강(22.8%), 해원에스티(20.2%) 등의 감소율을 20%를 웃돌았다. 대한제강(18.4%), 세아제강(14.3%), 원일특강(14.1%), 한국철강(7.4%), 동국산업(3.9%), 대창스틸(1.5%) 등도 이익감소를 면치 못했다.

반면 11곳은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2곳은 흑자전환했다.
KG동부제철은 243억 원으로 957.3% 급증했다. 포스코강판은 268.6% 증가했다. 금강철강, 세아창원특수강은 각각 201%, 140.2% 늘었다. 이어 부국철강, 동국제강, 한국선재, 현대비앤지스틸, DSR제강, 디씨엠, 대양금속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삼강엠앤티, 한국특수형강은 흑자전환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3.7%로 2.8%p 하락했다.
현대종합특수강은 0.4%로 가장 낮았고 부국철강은 0.8%로 1%미만을 기록해 사실상 남는게 없었다. 문배철강, 포스코강판, 세아특수강, 경남스틸, 대양금속, 해원에스티, 삼현철강, 금강철강, 한국특수형강, 한국선재, 현대비앤지스틸, 대창스틸, 원일특강은 3%를 밑돌아 업계 평균치 보다 낮았다.
디씨엠은 9.7%로 업계 철강업계 최고 이익률을 나타냈다. 또 환영철강공업 7.5%, 삼강엠앤티 7.4%, 세아제강 7.2%로 7%를 웃돌았다. 한국철강, 포스코, NI스틸, KG동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대한제강, 동국제강, 동국산업, DSR제강 순으로 이익률이 높았다.

주요 철강기업 2020년 1분기 실적

단위:억 원

구분	2020년 1분기		증감률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2020년	증감
포스코	69,699	4,581	-10.8%	-45.0%	6.6%	-4.1%p
현대제철	41,443	-213	-7.4%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동국제강	11,144	481	-9.5%	59.4%	4.3%	1.9%p
KG동부제철	4,614	243	9.6%	957.3%	5.3%	4.7%p
세아베스틸	4,087	-39	-16.0%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세아제강	2,989	217	-9.1%	-14.3%	7.2%	-0.4%p
세아창원특수강	2,836	141	-2.6%	140.2%	5.0%	2.9%p
포스코강판	2,161	23	4.1%	268.6%	1.1%	0.8%p
대한제강	1,755	83	-21.1%	-18.4%	4.7%	0.2%p
현대비앤지스틸	1,698	44	-7.8%	24.1%	2.6%	0.7%p
한국철강	1,485	100	-15.3%	-7.4%	6.7%	0.6%p
세아특수강	1,346	17	-8.9%	-52.1%	1.2%	-1.1%p
삼강엠앤티	1,142	85	257.7%	흑자전환	7.4%	흑자전환
현대종합특수강	1,083	4	2.4%	-83.0%	0.4%	-1.8%p
환영철강공업	1,059	80	-15.0%	-33.6%	7.5%	-2.1%p
휴스틸	1,032	-30	-24.5%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한국특수형강	865	19	-7.7%	흑자전환	2.2%	흑자전환
동일산업	830	-19	-11.1%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TCC스틸	830	-4	-5.9%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동국산업	773	33	-4.1%	-3.9%	4.2%	0.0%p
금강공업	751	-30	-21.0%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경남스틸	683	12	-14.1%	-27.4%	1.8%	-0.3%p
원일특강	621	18	5.7%	-14.1%	2.9%	-0.7%p
삼현철강	565	12	-3.2%	-22.8%	2.1%	-0.5%p
DSR제강	461	18	-1.6%	22.5%	4.0%	0.8%p
디씨엠	455	44	20.7%	10.0%	9.7%	-0.9%p
영흥철강	445	-16	-1.3%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NI스틸	438	26	40.6%	-27.8%	6.0%	-5.7%p
금강철강	437	9	2.5%	201.0%	2.1%	1.4%p
대창스틸	420	12	-19.3%	-1.5%	2.8%	0.5%p
대호피앤씨	412	-14	-22.0%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해원에스티	403	8	-10.9%	-20.2%	1.9%	-0.2%p
한국선재	391	10	-3.9%	55.3%	2.6%	1.0%p
문배철강	381	4	-1.4%	-43.8%	1.1%	-0.8%p
대양금속	381	7	2.7%	1.4%	1.9%	0.0%p
하이스틸	365	-4	-49.3%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한일철강	364	-19	-14.9%	적자지속	영업손실	적자지속
동양에스텍	355	-0.3	-19.4%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부국철강	333	3	2.5%	97.8%	0.8%	0.4%p
화인베스틸	273	-16	-20.9%	적자전환	영업손실	적자전환
포스코 제외	92,107	1,347	-7.1%	-58.0%	1.5%	-1.8%p
합계	161,805	5,928	-8.8%	-48.6%	3.7%	-2.8%p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올 1~4월 철강재 수입 줄줄이 감소 전년 대비 18% 줄어 510만톤
  …중국 21% 감소, 품목으로는 철근 65.6% 최대 감소
- 올 1~4월 철강재 수출 962만톤 전년비 5.3%, 54만톤 감소
- 15일 산업부 성윤모 장관, 철강업계 대표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 동국제강 고철(철스크랩) 인하 '선봉'…업계 동참 여부가 '관건'
- KG동부제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43억원, 전년비 약 10배 증가
-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81억원(별도 기준), 전년비 59.3% 증가
-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조업체 '제낙스' 회사 매각 불발
- 신주열 금문철강 부사장,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9대 이사장 취임
- 해외 : EU철강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유례없는 시황 악화, 3분기 초부터 생산 재개 전망
  중국 철강재 재고 대폭 감소…중후판 재고조정 완료
  아시아 열연강판, 철근 수입 가격 상승…추가 상승에는 '회의적'
  중국 조강 생산 증가로 철광석 가격 5월 들어 10.9% 급등 92.9달러 1월 이후 최고가
  중국 철강 가격 하락 압력 커져 "오를 만큼 올랐다"

2) 수요/연관 뉴스

- 무디스 세계 자동차 판매량 20% 급감 전망…한국 마이너스 6%로 '양호'
- 쌍용자동차 상장 폐지 '위기'…13분기 연속 적자, 감사의견 '거절'
- "주 3일 근무로 연명, 고통스럽다" 자동차 협력사 잔인한 5월
- 닛산자동차 연합, 세계 생산 20% 삭감…스페인공장 폐쇄 등 유럽 위주 생산체제 조정
- 인도 타타자동차, 승용차 부문 분사 예정
-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앤플레이스 광주에 1천만달러 투자
- 미국, 원유 채굴 또 줄여, 9주째 시추 시설 감소
- 현대건설 '탄소 배출 감소 모범', 2년 연속 COP 명예의 전당
- 대우건설, 5조원대 나이지리아 LNG Train7 체결…EPC 원청사 참여 쾌거

3) 경제/산업 뉴스

- 15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231.0원 (전일 대비 ↑ 3.0원) 원/100엔 1148.25원 (↓0.97원)
- 철강 재도약 위해 프로젝트 조기 집행…금속 R&D 4천억원 지원
- 3월 은행 대출 연체율 0.39%…"코로나19 영향은 아직"
- 금융연구원 코로나19 여파…올해 경제성장률 -0.5% 전망
- 4월 취업자 47.6만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악'
-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공장 가동률 30%까지 추락…흔들리는 자동차 부품 산업
- 해운사 HMM, 카카오와 손잡다…"디지털 혁신으로 체질 개선"
- OPEC, 올해 세계 원유 수요 9.1% 감소 전망
- HSBC, 올 세계성장률 한 달 만에 -3.3%에서 -4.8%로 낮춰
- 유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3.2% 전망…1월 1.8~2.5%에서 크게 낮춰
- 미국 2분기 성장률 -32.3% 전망…6월 실업률은 16.9% 예상
- 日 1분기 GDP 3.4% 감소…5년 만에 2분기 연속 역성장

● 리튬 등 배터리 관련 금속 수요 2050년 500% '폭증'

● 주요 경제지표 (5.15.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8말	'19말	'20.4말	5.13	5.14	5.15	전일비	19말비
₩/U$	1,115.70	1,156.40	1,218.20	1,223.80	1,228.00	1,231.00	**0.24**	6.45
선물환(NDF,1월물)	1,114.90	1,155.40	1,218.90	1,223.90	1,227.90	1,231.00	0.25	6.54
₩/CNY	162.79	165.5	172.31	172.5	173.09	173.41	0.18	4.78
₩/Y100	1,008.86	1,059.75	1,143.31	1,142.24	1,149.27	1,148.21	△0.09	8.35
Y/U$	110.59	109.12	106.55	107.14	106.85	107.21	0.34	△1.75
U$/EUR	1.1455	1.1194	1.0843	1.085	1.0801	1.0802	0.01	△3.50
CNY/U$	6.8522	6.9848	7.0792	7.0878	7.0982	7.0993	0.02	1.64
* '19년 평균 환율: (₩/U$) 1166.1원, (₩/￥100) 1070.7원								
* '20년 평균 환율('20.1.1~현재): (₩/U$) 1204.3원, (₩/￥100) 1111.1원 3시 30분 기준								
[유가.원자재]	**'18말**	**'19말**	**'20.4말**	**5.12**	**5.13**	**5.14**	**전일비**	**19말비**
Dubai ($/배럴)	**52.86**	**67.27**	**20.73**	**26.93**	**26.84**	**29.83**	**11.14%**	**△55.66%**
WTI 선물 ($/배럴)	45.33	61.06	18.84	25.78	25.29	27.56	8.98%	△54.86%
동 ($/톤)	6,018	6,156	5,231	5,324	5,213	5,156	△1.09%	△16.24%
알루미늄 ($/톤)	1,881	1,800	1,461	1,443	1,439	1,434	△0.35%	△20.33%
* '19년 평균 유가: (Dubai) (Dubai): 63.55$, (WTI 선물): 57.03$								
* '20년 평균 유가('20.1.1~현재) (Dubai): 41.51$, (WTI 선물): 36.87$ 3시 30분 기준								
[주가]	**'18말**	**'19말**	**'20.4말**	**5.13**	**5.14**	**5.15**	**전일비**	**19말비**
KOSPI	**2,041.04**	2,197.67	**1,947.56**	**1,940.42**	**1,924.96**	1,927.28	**0.12%**	**△12.30%**
-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1,207	54,296	103,750	197,216	90,123	94,690	5.07%	-
KOSDAQ	675.65	669.83	645.18	691.53	690.57	691.93	0.20%	3.30%
외국인순매수(억원, 기간 중*)	2,730	△2,816	2,131	△3,374	△5,739	△5,258	△8	-
* 기간중: '18말('18.1.1~12.31), '19말('19.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5.08)

-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
- 2020년 2월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부각되고 있음.

*. 바로가기 : https://hri.co.kr:442/storage/newReView.asp?boardid=&column=&numIdx=30188&skin=&mode=&GotoPage=1&keyword=&firstDepth=1&fourthDepth=&secondDepth=0&sortby=&thirdDepth=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 20.05.11)

-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포스크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질 모습을 전망.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NewsBriefDetail.asp?SEQ_NO_C040=2443

3)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4월말 기준) (출처 : 국제금융센터, 20.05.07)

-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추가 하향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해 -2.0%포인트 하락할 전망임
- BNP Paribas는 산업 측면에서 공급능력의 영구적 손상 가능성을 연급하였음.
- 세계 및 각 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통해 살펴봄.

*. 바로가기 :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